



1994. 3. 2

아우내장터의 3·1 함성 "身土不二만세"

【전안】趙憲注·李基鎮 75

년전 柳寬順 열사가 만세를 불렀던 충남 천안군 병천면 아우내장터 등 己未 3·1 운동 당시의 사적지에서 우리 농촌을 살리는데 주부를 이 앞장서고 다짐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아우내 리의 쌀과 농촌을 살리자 자들은 성화와 대형 태극기를 든 하얀 저고리 점령 치마 차림의 주부들을 선 두로 2km 가량 떨어진 柳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회장 尹秀子) 회원

주부등 萬여명 참석

“개방근복” 2km 행진

및 전국 농협부녀회 회원, 寬順기념관까지 「대한독립 일만시만 1만여명」 1일 만세를 외치며 추모행진 아우내장터에서 「아우내장터 만세대회」를 열고 우리 기념관 앞 마당에서 루과이관(UBR) 협찬하는 3·1 운동 당시 순국선

태극기 행진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여명은 1일 충남 천안 아우내장터에서 身土不二만세 대회를 가진 뒤 柳寬順기념관으로 행진하고 있다.

(전안) 金榮万

열 유족들과 韓鮮鮮농협중앙회장을 각계 인사와 참 석한 가운데 「만세대회」가 열렸으며 「身土不二만세」 「저래의 한마당」 등 각종 놀이와 행사가 오후까지 계속 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제하 36년간에도 지켜왔던 우리 농산물과 우리 농민이 지 금 무너지고 있다」며 그러 나 주부들이 앞장을 서면 우리 농산물을 지킬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榮万 주부협천안시지부부 녀회장(50)은 「身土不二만세」 3·1 독립정신을 오 들의 상황에 맞게 되살리

려는 것이라며 부녀회원들과 발을 새며 그린 태극기를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아우내장터 만세대회 행 사는 작년 3월 1일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이 주관 처음 열리는데 이 어 올해 두 번째다.

이 모임은 농협 교양강좌인 주부대학을 마친 도 시주부들이 지난 90년 결 성한 단체로 현재 전국에 16만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 다. 농협부녀회는 두레정 신을 바탕으로 농촌마을에 만들어진 조직으로 회원은 1백 30여만명이다.

辯護士 開業人事

저는 서울 高等法院 特別部 判事를 끝으로 情들었던 法官職을 辭任하고 辯護士 業務를 시작 하게 되었기에 人事드립니다. 제가 서울 法大(第 31回)를 졸업하고 司法研修院을 第 11期로 修了한후 馬山地方法院 釜山地方法院 水源地方法院 서울高等法院의 判事로 在職하는 동안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恩惠에 깊이 感謝드립니다. 앞으로 辯護士로서의 業務를 誠實히 遂行하겠 사오니 變함없는 聲援이 있으시길 祈願합니다. 1994. 2.

辯護士 金榮大 啓

·事務所: 서울 瑞草區 瑞草洞 1699의 16
·電話: 592-0363 (代) 536-8073, 8074
·FAX: 592-0362 ·自宅: 511-1356
·業務開始日: 1994. 2. 23.
·開業小宴: 1994. 3. 11(金) 16:00부터